

2010. 3월

- 황새마을조성사업 관련 - 일본 토요오키시 방문 보고



황새복원센터에서 요미우리신문사 인터뷰

예 산 군
(의회사무과)

順 序

I . 공 무 국 외 연 수 개 요

연수 개요

연수자 명단

연수 일정

【 연수 흐름 】

II . 기 관 및 지 역 방 문

일본 토요오카 시청

황새복원 연구실

오오사카 남향 야조엔

【 시사점 】

III . 연 수 후 기

[참고] ① 요미우리신문 보도자료

② 고베신문 보도자료

I. 公務國外 研修概要

《연수보고에 앞서》

- 금번, 일본 황새복원마을 방문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동행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 2010년 본격적인 황새복원사업을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황새야생복원에 성공한 일본 효교현 도요오카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군 사업에 접목시키고자 함

연수 개요

- 기 간 : 2010. 3. 8 ~ 3. 11(3박 4일)
- 연수 국가 : 일본
- 참가 인원 : 11명(군의원 6, 의사과 4, 집행부 1)
- 주요 내용
 - 황새생태마을조성사업 관련 황새복원마을 방문 및 교류

연수자 명단

- 예산군 군의원 (6)
 - 권국상 의장, 신영균 부의장, 강연중 의원, 박종서 의원, 조병희 의원, 이진자 의원
- 예산군 의회사무과 (4)
 - 윤석용 전문위원, 엄태승, 박찬동, 원경애
- 예산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연수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 무 내 용	비 고
3월 8일 (월)	인천공항	토요오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 토요오카시 도착 	
3월 9일 (화)	토요오카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새고향공원 방문 ○ 친환경 농지 답사 	토요오카 시 청 방 문
3월10일 (수)	토요오카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오톱 지역 방문(토시마습지) ○ 오사카 남향 야조엔 방문 	
3월11일 (금)	토요오카시	인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오이즈미 녹지 방문 ○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Ⅱ. 機關 및 地域 訪問

【일본(日本)】

- 국 명 : 日本
- 위 치 : 북위 20° ~ 25°에서 45°33'에 위치
 - 일본 열도는 4개의 주요 섬으로서, 즉 本州(혼슈우), 北海道(홋카이도오), 九州(큐슈우), 四國(시코쿠)와 그에 인접하는 3,900여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
- ※ 총 면적 377천km² (남북 약 2,500km) 우리나라의 1.7배
- 수 도 : 동경, 도쿄(Tokyo)
- 인 구 : 1억 2,700만명
- 언 어 : 일본어 (Japaness)
- 기 후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 종 교 : 신도(hintoism), 불교(Buddism), 기독교(Christianity)
- 주요민족 : 일본족 (Japaness 98%)

【효교현 토요오카시 일반현황】

- 면 적 : 697.66km²
- 일반회계 예산(2010) : 1,764억엔
- 공무원수 : 985명
- 인 구 : 89,600명 (세대수 29,617)
- 고령화율 : 25.9%
- 논 규모 : 7,240,000ha (80% 산림지역)

일본 토요오카시

● 소 재 지 : 일본 효고현 토요오카시 중앙로 2-4

TEL 0796-23-2575

● 방문 일시 : 2010년 3월 9일 (화) 11:30 ~ 14:30

● 접 견 자 : 무네타루 나카가이 시장

● 방문 목적 : 일본의 황새복원 성공 전략 등 벤치마킹

《브리핑 주요내용》

○ 2005년 9월 황새 5개체를 방조하는 황새 야생 방조식을 개최하면서 방문자 수 급증

○ 소득증대 실제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

- 토요오카시 방문기간 : 1박 2일

- 방문기간 중 지출비용 : 평균 34,690엔

- 황새를 보기위한 목적인 방문자 퍼센트 : 전체 관광객의 19.2%

- 연간 관광객 수 : 약 45만명

○ 토요오카시 행정조직 및 황새고향공원

- 토요오카시 행정조직

황새공생국 (72명)	농림수산과	25명
	황새공생과	19명 (황새문화관 10명 포함)
	농업공제과	10명
	지적조사과	18명

○ 1989년 효고현에 황새고향공원 건립

- 황새문화관, 연구관리동, 사육시설, 인공습지 및 연못 등
- 전체면적 : 1,850,000m²
- 황새고향공원 조성비용 : 53억엔 소요(부지매입비 포함)

	지원기관	토지매입비	토목조성비	건축비	계
황새사육장 및 연구·관리동	효고현	16억엔	17억엔	14억엔	47억엔
황새 문화관	토요오카시	-	-	4.6억엔	4.6억엔
황새 기념품관	토요오카시	0.1억엔	0.05억엔	1.25억엔	1.4억엔
총 계		16.1억엔	17.05억엔	19.85억엔	53억엔

○ 황새고향공원 연간 운영비용 : 1.4억엔

2008년 운영예산	국비	현비	시비	계	비고
토요오카시	0.4억엔	0.7억엔	0.3억엔	1.4억엔	0.35억엔 사료비
총 계	0.4억엔	0.7억엔	0.3억엔	1.4억엔	

- 황새고향공원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공개지역인 문화관, 야외 황새관찰습지 및 사토야마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아침시장회(朝市友)는 매주 목, 일요일에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농작물 등을 판매하는데 농가에게 직접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에 경제적인 수익보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신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황새복원 연구실 (황새고향공원 內)

- 소 재 지 : 황새고향공원 내 위치
- 방문 일시 : 2010년 3월 9일 (화) 09:00 ~ 11:30
- 방문 목적 : 일본의 황새복원 전략 및 성공사례

《브리핑 주요내용》

- 황새고향공원 인적 구성 (연구동) : 25명
 - 연구분야 : 보전생태분야 1명, 조류행동분야 1명, 경관생태분야 1명, 환경사회학분야 1명, 수의학분야 1명, 보조연구원 2명
 - 사육분야 : 15명
 - 행정분야 : 2명(행정담당), 3명(교육담당)
- 황새고향공원은 크게 비공개지역과 공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공개 지역은 황새 자연순화구역과 자연구역으로 나뉘며
 - 자연구역 : 장래 야생으로 돌아간 황새가 둥지를 만들고 번식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보전
- 그 외 황새 야생방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수의학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검역실과 연구동이 있으며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담당
- 송전탑의 영향
 - 토요오카시에는 송전탑이 약 100여개 위치하고 있음
 - 토요오카시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송전탑들은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송전탑선로가 평야지역을 가로지름(각각 4km, 5km거리)(A)

○ 황새고향공원 내 시설물



가. 야생화훈련장



나. 번식장



다. 인공습지



라. 야외황새관찰습지



마. 연구동



바. 인공먹이장



사. 문화관



아. 야외황새관찰대

○ 시립 황새 문화관



○ 농산물 및 기념품 판매소



○ 황새복원 프로그램 현황

2009년	야생 자연번식 성공 9개체, 야생 황새 1개체 도래
2008년	추가 야생 방조 2개체, 야생 자연번식 성공 8개체
2007년	추가 야생 방조 5개체, 첫 야생 자연번식 성공 1개체
2006년	추가 야생 방조 9개체
2005년	첫 황새 방조 시작 (7개체): 제 3회 국제 황새복원포럼 개최 6개체 인공번식 성공
2004년	러시아(하바로프스크 지방)로부터 야생의 유조 2개체를 기증받음 황새 팬클럽 결성 야생화 훈련 시작 10개체 인공번식 성공
2003년	도쿄 다마동물공원과 6개체 교환 아이치현에서 보호된 야생 황새 1개체를 공급받음 러시아(하바로프스크 지방)로부터 야생의 유조 2개체를 기증받음 오사카시 텐노지 동식물 공원으로부터 유조 1개체를 기증받음 히로시마시 아사 동물 공원과 1개체 교환 황새 야생 복원추진 연락협의회 발족 황새 야생복원 추진 계획 결정 6개체 인공번식 성공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번식제한 시작
2002년	야생 황새가 토요오카 분지에 정착 시작(8월 5일) 도쿄 다마동물공원으로부터 1개체 공급받음 황새야생복원추진 협의회 개최 18개체 인공번식 성공. 사육황새 100개체 이상
2001년	오사카 텐노지 동식물 공원으로부터 유조 2개체를 공급받음 도쿄 다마동물공원으로부터 유조2개체를 공급받음 8개체 인공번식 성공
2000년	도쿄 다마동물공원으로부터 2개체를 공급받음

	요코하마 시립동물원에 2개체 대여
	오사카 텐노지 동식물 공원에서부터 유조1개체를 공급받음
	8개체 인공번식 성공
1999년	효고현립 황새고향공원을 개원
	러시아(하바로프스크 지방)로부터 야생의 유조 2개체를 기증받음
	8개체 인공번식 성공
	오사카시 텐노지 동식물 공원에서부터 유조 3개체를 공급받음
1998년	사육 황새 50개체 이상으로 증식
1997년	토요오카 시내 효고현립 황새고향공원 착공
1994년	사육 황새 제3세대 탄생
1992년	사육황새의 야생방사 계획
1989년	러시아에서 기증받은 황새의 첫 인공번식 성공
1986년	토요오카 분지에 서식했던 마지막 황새가 황새 사육장에서 사망
1985년	구 소련(하바로프스크 지방)으로부터 야생 황새 유조 6개체 기증받음
1971년	일본 내의 야생 황새 멸종
	토요오카 시의 마지막 야생 황새 1개체, 토요오카 시에서 보호하였지만 사망
1965년	암수 1쌍 포획 후 인공 사육 시작, 효고현의 현조로 지정
	노가미 지구에 황새 사육장 완공
1964년	황새 사육장(현재의 황새 보호 증식 센터)의 건설에 착수.
1963년	야생 개체를 포획하여, 인공 사육을 추진할 것을 결정
	야생 황새는 11개체로 감소/ 야생황새 등지의 알을 인공 부화 시도했으나 실패
1962년	효고현이 특별 천연기념물 황새 관리 단체의 지정받음
1956년	야생 황새는 20개체로 감소/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
1955년	황새보전협회 발족, 관민 일체가 된 보호 운동을 전개
1940년대 초	제 2차 세계대전
- 1929년	토요오카 시내에 야생 황새 60개체 서식



토요오카 황새공생과 황새복원과정 시청



황새복원 연구동

오오사카 남향 야조엔

- 방문 일시 : 2010년 3월 10일 (목) 10:00 ~ 15:00
- 방문 목적 : 친환경 습지와 공원녹지 등 벤치마킹

《시설개요》

- 위치 : 오사카 오사카만 남향
- 개원 : 1983년(소화 58년) 9월
- 시설면적 : 19.3ha
 - 습지부 : 12.8ha
 - 녹지부 : 6.6ha
- 관람시설 : 전망탑, 북관찰소, 남관찰소

《시 사 점》

- ① 1983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서 지원하고 있고 주민자생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일본국민의 자연환경 보존 정신을 볼아 보는 계기
- ② 주민 누구나 연간 방문가능한 시설 완비
 - 연간 150종 이상 야생조류 관람 가능
 - 개원 이래 241종 야생 조류가 야조원을 다녀간 기록 관리
- ③ 주민 자체 조직으로 활성화
 - 지역주민 3개반 15명이 20ha를 관리하고 운영
 - 연간 25만명이 야조엔을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함



Ⅲ. 연 수 후 기

○ 한국과 비슷한 시골 풍경, 동양적 정서 등은 피곤한 연수단의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는 듯 했으나, 역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겉에서 편하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이나 문화의 이질감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다.

○ 첫날 방문한 황새공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훗날 예산 황새공원의 미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다. 주말도 아닌 평일 더욱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관광버스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으며 문화관으로 들어서면 황새 박물관인 듯 황새가 여기저기서 반기는 듯 하다.

황새 관람석에 들어서면 바로 눈앞에 황새들이 큰 날개를 접어 사뿐이 내려앉은 모습에 관람객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모습에 일본인들의 황새사랑을 가늠하게 했다.

○ 민간단체 대표와의 면담이 있는 날 사타케 세즈오씨는 우리 연수단을 반갑게 맞았다. 사타케씨는 시청에 근무하며 황새 사업을 전담했고 퇴직후에도 황새와 살고 있다. 그는 “18년동안 황새에 미쳐 승진도 못했다”며 어떤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연수단 모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만 살수 있으며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인간만이 살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뇌어 보게 됐다.

○ 수십년전부터 황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추진

하고 있는 토요오카시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행정전담관리
부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농민들이 협력하여 황새사랑을 이어간다면 일본을 능가하는
황새마을이 될 것이다.

- 특히, 황새마을로 선정된 우리 예산지역은 천혜의 자원인 예
당저수지와 습지, 또한 자연환경이 구비되어 황새가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충분한 자연조건이 아닌가 쉽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자료

(2010年 3月 13日 読売新聞)



2012年にコウノトリ放鳥を計画する韓国忠清南道礼山（イエサン）郡の郡議会の一行11人が、兵庫県豊岡市を視察した。
2012년에 황새 방조를 계획하는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군 의회의 일행 11명이, 효고현 토요오카시를 시찰했다.

県立コウノトリの郷公園や戸島湿地などを訪問し、卵を温めるコウノトリなどを見た。
현립 황새 시골 공원이나 도지마 습지 등을 방문해, 알을 따뜻하게 품는 황새 등을 보았다.

市役所では中貝宗治市長が「コウノトリもすすめる豊かな環境をのため、課題を克服しコウノトリ舞う礼山を」とあいさつ。権国相（クオン・クックサン）議長（61）は「成功事例を学び、施設を設けたい。協力を求めると思うので、これをきっかけに交流を深めたい」と答えた。

市청에서는 중패중 오사무 시장이 「황새도 살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때문에, 과제를 극복해 황새 춤추는 예산을」 이라고 인사. 권국상(쿠·쿠크산) 의장(61)은 「성공 사례를 배워, 시설을 마련하고 싶다. 협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계기로 교류가 깊어지고 싶다」 라고 대답했다.

(9日撮影 松田聡)
(9일 촬영 마츠다 사토시)

고베(神戸) 신문 보도자료

(2010年 3月 10日 神戸新聞)

2010年(平成22年)3月10日 水曜日

神戸新聞

コウノトリ野生復帰推進

韓国の議員ら豊岡視察

郷公園など



飼育されるコウノトリについて説明を受ける議員団＝
豊岡市祥雲寺、コウノトリの郷公園

2012年にコウノトリの放鳥を計画している韓国南西部の都市、禮山郡の郡議会議員ら11人が9日、県立コウノトリの郷公園(豊岡市祥雲寺)などを視察に訪れた。同国で本格化する野生復帰

事業を前に、先進例として豊岡市の取り組みを知るのが目的。議員団によると、韓国でも鳥を野生に戻す取り組みが盛んになっており、同郡は、豊岡市同様

ウノトリの人工飼育に組み組んでいるという。現在は76羽を飼育中で、放鳥に向けてうち10羽が特別に訓練されている。一行は午前中はコウノトリ文化館で、職員から絶滅した経緯や、里山を復活させた住民の取り組みなどについて説明を受けた後、飼育施設を見学。飼育員に「どれくらいの期間訓練して放鳥しているのか」などと熱心に質問していた。

午後からは、同市の六方田んぼなどで、コウノトリの野生復帰のために取り組まれている農法についても学び、強い関心を示していた。禮山郡議会のクオン・クック議長は「今後も豊岡